



폭풍 및 태풍

폭풍은 풍력계급 11(28.5~32.6 m/s)의 몹시 세게 부는 바람을 뜻 하며, 흔히 비가 섞여 쏟아진다. 태풍은 강력한 열대저기압을 뜻한다. 세계 기상기구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33 m/s 이상 이면 태풍, 25~32 m/s 인 것을 강한 열대폭풍, 17~24 m/s 이면 열대 폭풍, 17 m/s 미만이면 열대저압부로 구분한다.

1 육상수조식 양식장 관리 요령

가. 주의보 및 경보 발효시

- 강풍에 대비하여 지붕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한다.
- 정전 및 단수에 대비하여 깨끗한 사육수를 충분히 저장한다.
- 탁수 유입방지를 위해 취수구 부근을 점검하고, 주수구와 배수구 및 수문 등의 시설물을 점검한다.
- 산소공급 장치와 비상발전기의 가동 여부를 사전 점검한다.
-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 중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.
- 사료공급은 태풍이 접근 전부터 완전히 소멸되어 사육환경이 호전 될 때까지 중단한다.
- 어류보호시설을 확보하고 운반용구를 점검 · 보수하여 비치한다.
- 사육밀도를 낮추기 위해 분산 수용하고 침수(예상)지역은 대피시킨다.
- 경보 발효 시에는 주수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탁수유입의 우려가 있는 곳은 차단한다.

나. 사후관리

- 깨끗한 사육용수로 교체하고, 수조 안으로 유입된 모래 · 펄 등의 이물질을 빨리 제거한다.

VI. 폭풍 및 태풍

- 피해시설물 및 피해내용을 조사하고 응급 복구를 추진한다.
- 양식생물의 외상에 의한 세균 감염에 주의하고, 질병 발생이 의심되면 수산질병관리가 등의 전문가의 진단을 통하여 적절한 처방을 취한다.
- 유영 및 먹이를 먹는 상태를 관찰한다.
- 재해 발생시 피해여부를 확인 후 보고체계에 의거 신속히 보고한다.

2 연안 가두리 양식장 관리 요령

가. 주의보 및 경보 발효시

- 그물망과 연결된 로프를 단단히 고정하고, 닻, 부자 등 가두리 관련 시설물을 점검하여 필요시 보강한다.
- 설치된 시설물은 풍파의 영향을 덜 받도록 침하시킨다.
- 양식장 관리서 및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사전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.
- 전복은 공급한 먹이가 조류 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급을 중단하고, 쉘터는 가두리망에 단단히 묶어 파도에 의해 가두리 밖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.
- 사료공급은 태풍이 접근 전부터 완전히 소멸되어 사육환경이 호전될 때까지 중단한다.
- 태풍 접근 전 사육밀도를 낮출 수 있도록 분산 수용한다.
- 양식생물의 도피 방지를 위해 보호망을 설치한다. 또한 양식생물의 보호시설을 확보하고 운반용구를 비치한다.

나. 사후관리

- 침하시설은 정상위치로 환원시킨다.
- 닻, 부자, 수하연, 뗏목 등의 일부 파손물은 제거하여 연쇄 파손을 예방한다.
- 수온, 염분 등 수질이나 적조생물 출현 등 어장환경을 점검한다.